

다. 그러나 이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던 것은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소변에서 측정된 결과였다.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러 차례 소변을 본 경우에 측정된 결과를 포함하여 상관관계를 본 결과 기울기 0.57에 해당하는 직선식과 높은 상관관계($r=0.90$)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Y=0.57X+0.75$, Y: 체표 면적당 24시간 소변 단백량, X: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임의로 채취한 1회 소변에서 구한 creatinine에 대한 단백량의 비율).

이와같이 낮 12시부터 저녁 6시동안 채취한 1회 소변에서 구해진 creatinine에 대한 단백량 비율을 구하면 24시간 뇨 단백에 대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β-Fluoroethylacetate 유기산에 의한 Hyperkalemia 발생에

전북의대 내과

강성귀 · 박재홍

무기산, 즉 HCl 또는 NH_4Cl 의 투여로 acidosis를 유발한 경우 acidemia 그 자체는 혈청 K농도를 증가시킨다. 즉 buffer가 덜 된 ECF내로 세포내 K의 유리로 인한 hyperkalemia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유기산을 투여시 혈청 K농도변화에 대한 동물실험의 성적들은 무기산 투여 때와는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clinical aspect에서는 혈청 K농도에 변화, 특히 K의 증가 보고에는 없는 실정이다.

연자들은 69세 여성이 가정불화로 β-fluoroethylacetate 6 gm을 먹은 후 반흔수 및 전신경련 상태로 1985년 1월 당원 응급실에 즉시 운반되었는데, 이때 혈액 pH 7.26, HCO_3^- 17 mEq/l의 심한 metabolic acidosis 상태로써 혈청 K 5.07 mEq/l로 증가되었던 예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신증후군 환자에서의 혈장 antithrombin III 농도

경희의대 내과

우정택 · 이병욱 · 장영운

권오선 · 임천규 · 김명재

신증후군에서 혈전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것은 과응고성 상태를 의미하며 경도의 혈소판증가증, 과섬유소원혈증과 혈액응고인자 VII, VIII, X의 활동성이 증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신증후군에서 혈전경향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여러 보고에서 상반되고 있다.

트롬빈의 주된 억제인자인 Antithrombin III가 혈전소인과 직접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Antithrombin III 농도의 저하와 혈전색전 현상과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저자들은 혈중 Antithrombin III의 농도를 10명의 신증후군 환자에서 측정해 보았다. 환자 10명중 Minimal change 4명, MPGN 2명, focal and segmental glomerulosclerosis가 3명, PSGN이 1명이었다. 혈청 크레아티닌의 농도는 0.8 mg%~3.1 mg% (평균 1.69 mg%)였으며 신경맥 혈전이 확인된 1예에서는 2.0 mg%이었다. 혈중 Antithrombin III농도는 환자군에서 18.8 ± 5.6 mg/dl, 대조군에서 32.7 ± 4.6 mg/dl로 환자군에서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p < 0.005$). 환자의 하루동안의 소변내 알부민량과 Antithrombin III와의 상관계수는 -0.34 였으며 혈청 알부민과 Antithrombin III와의 상관계수는 0.6이었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혈액투석 전후의 antithrombin III의 변화

경희의대 내과

이병욱 · 장주희 · 신현호

임천규 · 김명재

Antithrombin III는 헤파린의 항응고효과 발현에 필요한 인자로서, 외부로부터의 계속적인 헤파린의 투여는 혈청내 Antithrombin III를 고갈시켜 결국 헤파린